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조리전공자의 대학 선택 영향 요인의  
우선 순위 분석  
-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을 중심으로 -

나 태 균<sup>¶</sup>, 김 장 익  
영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The Analysis of the Priority Order in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Choice of Culinary Art Majors using AHP  
- Focusing on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hungcheong-do -

Tae-Kyun Na<sup>¶</sup>, Jang-Eix Kim  
*Dept. of Hotel & Foodservice Culinary Art, University of Young-d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iority order in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choic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culinary art in Chungcheong-do. For the study, we set the decision-making factors of upper hierarchies and nineteen bottom hierarch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employed the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AHP). As a result, the first considering factor among 4 upper hierarchies for college choice w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of the department(0.378). The next came in the order named as follows: college and university grade(0.263),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of colleges or universities(0.244), recommendation(0.115). The first considering factor amo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of the department was the aptitude for the major(0.323). The first considering factor in college and university grade was the entrance competitive rate(0.397). The first considering factors amo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of the colleges or universities were scholarships and tuition fees(0.325). The first considering factor in recommendation was the recommendation of a high school teacher(0.295). This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under the turbulent change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Key words : AHP, culinary art major, college choice, educational environment, grade, recommendation.

I. 서 론

누구나 삶의 각 단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과 전공에 대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크다(황매향

¶ : 교신저자, 010-6242-5712, foodpia@youngdong.ac.kr,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2-1

2002).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1990년대 중반 복수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경의 질적인 패러다임 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입시생의 감소에 따른 각 대학의 입시생 유치 경쟁, 대학 시장의 대외 개방, 자유로운 경쟁 논리의 대학 침투, 교육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 및 경쟁 유도 등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학 간의 경쟁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신도길 2000).

또한, 최근의 학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적인 것에서 다양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취향과는 상관없이 일류 대학의 유망 학과를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신도길 2000).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넘쳐나는 대학 지원자들 중에서 필요한 자원을 골라 뽑던 학생 선발(selection)의 시대를 마감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을 모셔오는 학생 유치(recruitment)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정시용 2001). 교육 시장이 학교(sellers market) 중심에서 구매자인 학생(buyers market)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다(박종무·전채남·권미옥 2004; 고경순 1999).

대학 간의 경쟁 심화 추세는 조리 관련 학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리 관련 학과는 최근 외식산업 분야에서 종사 직종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되어가면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개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장명희 2005). 1983년 2년제 대학으로서 처음으로 경희호텔전문대학의 조리 관련 학과와 1995년 경기대학교 관광학부에서 4년제 과정을 개설한 것을 효시로 약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김기영 2005). 그러나 대학 입학 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일차적으로 2년제 전문대학의 조리 관련 학과의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음으로 대외 이미지가 취약한 중하위권 4년제 대학의 조리 관련

학과들로 파급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대학은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하는 기로에서 살아 남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학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정원을 채우는 일일 것이며, 대학이 학생 정원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각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왜 해당 대학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영훈 2004).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리전공 학생들의 대학 입학 시 학과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학생들의 대학 선택 행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조리 관련 학과의 학생 유치 전략을 개발하려는 대학 경영자나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 선택

대학 선택(college choice)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용어 즉, 대학 계획(college plan), 교육 목적(educational goals), 고등 교육 수요(demand for higher education), 그리고 대학 선별(college selection) 등과 혼용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신봉섭 1997).

Hossler & Coopersmith(1989)는 대학 선택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의 열망을 발전시키고,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복합적인 다단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시용(2001)은 대학 선택(college choice)은 학생들이 특정의 대학에서 형식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듯이 대학 선택(college choice)은 일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인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고, 다음은 진학 결정이 내려지면 다니고 싶은 대학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학교 결정 단계이다(손준중 2002).

두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학 선택 영향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는 중

요한 관심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별 대학 선택의 영향 요인은 <표 1>과 같다. Chapman(1981)은 학생의 적성이나 성적 같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대학의 특성 및 주위의 타자 요인 같은 외부적 영향 요인으로 구분하여 대학 선택 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손준중(2002)의 연구에서는 교육 요인과 환경 요인이 성적 요인이나 유의미한

<표 1> 선행 연구의 평가요소

연구자	요인	
손준중(2002)	교육 요인	교수의 질, 학교의 미래 전망, 학생편의 시설, 전공의 교육 내용, 졸업 후 취업 전망, 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
	환경 요인	학교 규모, 학교의 지리적 위치, 기숙사 시설, 통학 여건
	유의미한 타자 요인	선생님의 권유, 대학 광고, 주변 사람의 권유
	특성 요인	학사제도의 특성, 교육개혁 실적
	이념 요인	역사와 전통, 건학 이념과 교훈
	성적 요인	수학능력시험
신봉섭 · 이석영(2003)	장래성과 이미지	장기 전망, 사회 진출, 사회 인식, 취업, 사회적 이미지, 생애 소득, 프로그램, 대학 평가, 대학 비전, 학생 수준
	학문 프로그램	해외 유학, 대학원 교육 제도
	대학 명성	교육 시설, 대학 명성, 교수 명성
	재정적 접근성	수학 비용, 등록금, 통학 거리, 장학금
	대학 환경	대학 전경, 대학 규모, 지리적 위치
최관용 · 전승훈 · 정현택(2004)	내적 요인	장래성(5문항) 자기 희망(1문항) 자신의 능력 고려(2문항)
	외적 요인	권유(4문항)
		스카우트 조건(6문항)
		훈련 여건(5문항)
		훈련 분위기(3문항)
		대학의 인지도(3문항) 대학의 위치(2문항)
이영훈(2004)	대학의 여건	대학의 이미지, 캠퍼스의 여건,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 대학, 합격 가능한 대학, 대학이 주변 분위기, 대학의 발전 가능성, 교통이 편리한 대학, 적성에 맞는 학과
	대학의 혜택	장학금, 교수진, 취업률
	주위의 추천	친구의 권유, 가족의 권유, 고교 선생님의 추천
	학생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열망 수준, 적성, 고등학교 성적
Chapman(1981)	유의미한 타자(친구, 부모, 고교 교사 등)	유의미한 타자(친구, 부모, 고교 교사 등)
	외부적 영향 요인	대학의 고정적 특성(재정적 지원, 소재 위치, 프로그램 등) 대학의 학생과의 의사소통 노력(문서 정보, 캠퍼스 방문, 입학제도 등)

타자 요인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섭·이석영(2003)의 연구에서는 대학 선택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대학 특성에 있어서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속성보다는 대학 환경 요인에서 지각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문 프로그램 요인이나 장래성과 이미지 요인 같은 본질적인 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도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최관용·전승훈·정현택(2004)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권유, 부모의 권유, 학교 이름, 향후의 진로, 친구와 함께 진학, 자신이 원하여, 운동 환경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훈(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여건이나 대학의 혜택을 주위의 권유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AHP 분석기법

계층적 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 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의사 결정방법론으로(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1970년대 Saaty에 의해 개발되었다. AHP 분석기법은 여러 요소들을 계층 구조화하고 같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상대 평가를 통해, 각 요소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기법이며, 이원비교(reciprocal comparison), 동질성(homogeneity), 독립성(independence), 기대성(expectation) 등의 4가지 공리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요소는 물론, 정성적인 평가 요소에 대해서도 상대적 중요도를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임채관·이정실 2007). AHP 기법의 구체적인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HP는 판단의 일관성 유무에 대한 점검도구를 제공해 준다. 둘째, 기준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 줄 수 있다. 셋째, 평가체계를 목표체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넷째, 다수 의사 결정자의 참여시 단순 가중치 부여를 피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정성적인 요소를 모형에 고려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다. 여섯째, 문제를 분해해서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AHP의 문제 해결 구조가 인간의 논리적인 문제 해결 구조와 유사하므로, 현실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미래를 투영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다양한 체계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이러한 AHP 기법을 활용한 외식경영학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한나·한경수(2002)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외식기업의 인력 관리 목표를 심층 면접을 통해서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인력 관리 목표와 조직의 경영상의 목표를 조율하기 위해서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인력 관리의 우선 목표를 수립하였다. 염진철·박한나(2003)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선행 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해서 경영자적 관점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중요한 요인으로 구성한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입지 선정 문제를 각 요인의 평가기준을 이용한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오윤석·정순여(2004)는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 시스템 상에서 차지하는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측정 항목의 가중치를 살펴보고 지적성과 및 조직유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성과측정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AHP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재진(2006)은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베이커리 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베이커리 기업 경쟁력 결정요인을 영향도에 따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계층구조를 파악하였다. 이정실(2006)은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호텔·레스토랑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요소들의 상대적인 비중과 우선 순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AHP 분석기법은 여러 대안들을 다수의 목표 또는 요인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며, 정성적 또는 무형적 기준과 정량적 또는 유형적 기준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술성 및 파급효과 등의 정성적 평가기준과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의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혼재된 최적화 대안 선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정실 2006).

### Ⅲ. 연구 설계

#### 1. 학과 선택 의사 결정의 계층구조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 관련 학과 입학생의 대학 선택 영향 요인 간의 우선 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항목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상대 평가를 통해 각 요소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기법인 AHP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AHP 분석기법을 위한 모형 설계를 위한 첫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AHP 계층을 정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대학 선택(college choice)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추천 요인, 대학의 교육 환경 요인,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 성적 요인 등을 계층 2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계층 2의 요인에 대한 계층 3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인 권유 요인은 손준중(2002), Chapman(1981)의 연구에서 제시한 유의미한 타자 요인과 이영훈(2004), 최관용·전승훈·정현택(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위의 추천 및 권유 요인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생님의 권유’, ‘주변 사람의 권유’, ‘대학 광고, 교수의 권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대학의 교육 환경은 손준중(2002)의 환경 요인과 이념 요인, 신봉섭·이석영(2003)의 대학 명성 요인, 제정적 접근성 요인, 대학 환경 요인, 이영훈(2004)의 대학의 여건 요인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규모’, ‘지리적 위치’, ‘통학 여건’, ‘기숙사 시설’, ‘장학금 및 등록금’ 등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요인인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은 손준중(2002)의 교육 요인과 신봉섭·이석영(2003)의 장래성과 이미지 요인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질’, ‘취업률’, ‘전공의 교과과정’, ‘교육 시설’, ‘학과 명성’, ‘전공의 미래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요인은 손준중(2002)의 성적 요인과 이석영(2003)의 합격가능성 요인 등



<그림 1> 대학 선택의 계층구조.

과 현재의 입시 제도를 토대로 ‘수능 성적’, ‘입시 경쟁률’, ‘학생부 성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들에 토대로 AHP 계층을 구성, 정의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2.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구성

의사 결정계층의 구조화 다음 단계는 의사 결정요소 상호간의 쌍대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층적 의사 결정요소들 간의 쌍대비교의 수행과 쌍대비교 결과를 행렬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조근태·조용근·강현수 2003). 의사 결정요소 간의 쌍대비교는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수치척도의 제시와 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 때 수치척도는 9점 척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Saaty는 실험을 통하여 9점 척도가 실제 값에 가장 근접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김종원·김창현 2008; 김대관·박양우·이상민 2007). 이에 본 논문에서도 9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3. 설문대상

위에서 작성된 설문지에 대하여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조리 관련 학과의 재학생 중 2008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여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몇 개 대학을 추가한다고 해서 대표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연구 진행에는 조사 대상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연구 인력과 비용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충청도 지역에 위치한 조리 관련 학과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충청도에 위치한 조리 관련 학과는 4년제 대학교 2곳과 2년제 대학 5곳에 조리 관련 학과가 있으며<sup>1)</sup>, 이 중 4년제 대학 2곳과 2년제 대학 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 대학의 특징은 <표 3>과 같다.

설문기간은 2008년 4월 15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총 1달간 진행되었다. 설문방법은 설문의 객관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정규 수업시간에 각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간략한 설명

<표 2>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지

A	A가 더 중요				동등	B가 더 중요				B								
	절대 중요	확실히 중요	매우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매우 중요	확실히 중요	절대 중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권유																		대학 교육 환경
권유																		학과 교육 환경
권유																		성적
대학 교육 환경																		학과 교육 환경
대학 교육 환경																		성적
학과 교육 환경																		성적

1) 진학사(www.jinhak.com) 학과정보검색에 ‘조리’를 검색한 결과이며, 지리적으로 충청도에 위치한 대전광역시시는 제외하였다.

〈표 3〉 설문대상 대학의 특징

	위치	조리 관련 학과 설립년도	입학 정원 (2009년도 입시 기준)	설문 인원	최종 분석 인원
Y 대학교	충청북도	2003년	50명	50명	39명
C 대학교	충청남도	1998년	140명	50명	34명
B 대학	충청남도	1998년	570명	50명	34명
H 대학	충청남도	1988년	360명	50명	35명

을 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4.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요소들의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Saaty 1982).

이와 같은 AHP 분석기법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 200부 중 계층 2와 계층 3의 일관성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일률적인 답변을 한 5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42부의 설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CR값이 0.1 이상인 경우에는 Saaty(1982)는 설문을 재조사하도록 권장하였으나, 부적절한 응답으로 받아들여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AHP 분석기법에서 설문지에 대한 그룹의 평가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평가자들의 의견을 토의와 투표를 통하여 결집하고 이를 근거로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는 ‘그룹평가방법’이다. 둘째는 그룹 멤버가 행한 각각의 쌍대비교행렬을 수집하고 그룹 전체의 평가치를 수치통합하여 가중치를 구하는 ‘수치통합방법’이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수치통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고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쌍

대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기하평균법이기 때문이다(임채관·이정실 2007).

분석도구로는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SPSS 10.0을 사용하였으며, AHP 분석을 위하여 Expert Choice사의 AHP 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개발된 Expert Choice 10과 Excel을 이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C 대학교의 경우, 남성이 12명(35.3%), 여성이 22명(64.7%)으로 나타났으며, 입학 전 교육 경험은 있다 14명(41.2%), 없다 20명(58.8%)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의 유형은 인문계 30명(88.2%), 실업계 4명(11.8%)으로 나타났다. Y 대학교의 경우, 남성이 34명(87.0%), 여성이 5명(13%)으로 나타났으며, 입학 전 교육 경험은 있다 15명(38.5%), 없다 24명(61.5%)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의 유형은 인문계 32명(82.1%), 실업계 5명(12.8%), 기타 2명(5.1%)으로 나타났다. H 대학의 경우, 남성이 24명(68.6%), 여성이 11명(31.4%)으로 나타났으며, 입학 전 교육 경험은 있다 22명(62.9%), 없다 13명(37.1%)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의 유형은 인문계 20명(57.1%), 실업계 13명(37.1%), 기타 2명(5.7%)으로 나타났다. B 대학의 경우, 남성이 15명(44.1%), 여성이 19명(55.9%)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입학 전 조리

〈표 4〉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명(%)

구분	C 대학교	Y 대학교	H 대학	B 대학	전체	
성별	남성	12( 35.3)	34( 87.0)	24( 68.6)	15( 44.1)	85( 59.9)
	여성	22( 64.7)	5( 13.0)	11( 31.4)	19( 55.9)	57( 40.1)
	합계	34(100.0)	39(100.0)	35(100.0)	34(100.0)	142(100.0)
입학 전 교육 경험	있다	14( 41.2)	15( 38.5)	22( 62.9)	17( 50.0)	68( 47.9)
	없다	20( 58.8)	24( 61.5)	13( 37.1)	17( 50.0)	74( 52.1)
	합계	34(100.0)	39(100.0)	35(100.0)	34(100.0)	142(100.0)
출신 고교	인문계	30( 88.2)	32( 82.1)	20( 57.1)	22( 64.7)	104( 73.2)
	실업계	4( 11.8)	5( 12.8)	13( 37.1)	11( 32.4)	33( 23.2)
	기타	-	2( 5.1)	2( 5.7)	1( 2.9)	5( 3.5)
	합계	34(100.0)	39(100.0)	35(100.0)	34(100.0)	142(100.0)

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는 있다 17명(50%), 없다 17명(50%)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의 유형은 인문계 22명(64.7%), 실업계 11명(32.4%), 기타 1명(2.9%)으로 나타났다.

## 2. 계층 2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조리 관련 학과의 선택 요인인 계층 2의 추천 요인, 학교의 교육 환경 요인,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 성적 요인 등의 4가지 평가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의 측정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계층 2에 대한 대학별 일관성 비율(CR)은 전체적으로 0.01, C 대학교 0.05, Y 대학교 0.01, H 대학 0.02, B 대학 0.01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Saaty (1982)가 제시한 0.1보다 작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기준 값을 만족시켰다.

4개 대학 전체적인 평가영역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과 교육 환경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37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성적 요인(0.263), 대학 교육 환경 요인(0.244) 순으로 나타났다.

C 대학교에서는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0.42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학의 교육 환경(0.276), 성적 요인(0.206), 추천 요인(0.098) 순으로 나타났다. Y 대학교에서는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0.3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요인(0.247), 대학의 교육 환경 요인(0.237), 추천 요인(0.183) 순으로 나타났다. H 대학의 경우,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0.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교육 환경 요인(0.246), 성적 요인(0.227), 추천 요인(0.091) 순으로 나타났

〈표 5〉 학과 선택의 평가영역(계층 2)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

계층 2	C 대학교 (CR=0.05)		Y 대학교 (CR=0.01)		H 대학 (CR=0.02)		B 대학 (CR=0.01)		전체 (CR=0.01)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추천	.098	4	.183	4	.091	4	.117	4	.115	4
대학 교육 환경	.276	2	.237	3	.246	2	.270	2	.244	3
학과 교육 환경	<b>.421</b>	<b>1</b>	<b>.334</b>	<b>1</b>	<b>.436</b>	<b>1</b>	<b>.366</b>	<b>1</b>	<b>.378</b>	<b>1</b>
성적	.206	3	.247	2	.227	3	.248	3	.263	2



다. B 대학에서는 학과의 교육 환경 요인(0.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교육 환경(0.270), 성적 요인(0.248), 추천 요인(0.117) 순으로 나타났다.

### 3. 계층 3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 분석 결과

대학 선택 시 고려 요인의 각 영역별 평가요소에 대한 각 대학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 측정결과는 <표 6>과 같으며, 각 대학별 계층 3 평가영역의 일관성 비율(CR)은 모두 0.1 미만으로 나타나 Saaty(1982)가 제시한 수용할 수 있다는 기준 값을 만족시켰다.

먼저, 추천 요인에 대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추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29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

보면, C 대학교(0.374)와 Y 대학교(0.327)는 선생님의 추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H 대학(0.343)과 B 대학(0.277)은 교수의 추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네 학교 모두 대학 광고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 교육 환경 요인에 대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및 등록금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32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C 대학교(0.404), Y 대학교(0.349), H 대학(0.310)은 대학의 장학금 및 등록금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 대학의 경우 통학 여건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3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과 교육 환경 요인에 대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각 대학 별 평가영역(계층 3)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

계층 3	C 대학교		Y 대학교		H 대학		B 대학		전체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추천	선생님의 추천	.374	1	.327	1	.264	2	.273	2	.295	1
	주변사람 추천	.230	3	.297	2	.242	3	.261	3	.256	3
	대학 광고	.132	4	.162	4	.151	4	.189	4	.164	4
	교수의 추천	.264	2	.214	3	.343	1	.277	1	.285	2
대학	학교의 규모	.111	5	.095	5	.094	5	.092	5	.098	5
	지리적 위치	.168	3	.116	4	.172	4	.201	3	.173	4
	교육 통학 여건	.184	2	.172	3	.235	2	.306	1	.237	2
	환경 기숙사 시설	.134	4	.268	2	.189	3	.121	4	.168	3
학과	장학금·등록금	.404	1	.349	1	.310	1	.281	2	.325	1
	교수의 질	.080	7	.071	7	.071	7	.058	7	.067	7
	취업률	.145	3	.121	4	.087	5	.143	3	.115	3
	전공 교과 과정	.094	6	.094	5	.087	5	.111	4	.094	5
교육	교육 시설	.104	5	.127	3	.099	3	.110	5	.106	4
	환경 학과 명성	.120	4	.074	6	.098	4	.065	6	.083	6
	전공 미래 전망	.217	2	.249	2	.243	2	.218	2	.212	2
	전공 적성	.239	1	.263	1	.315	1	.296	1	.323	1
성적	수능성적	.537	1	.238	3	.228	3	.188	3	.237	3
	입시 경쟁률	.284	2	.346	2	.383	2	.461	1	.397	1
	학생부 성적	.178	3	.415	1	.389	1	.350	2	.366	2

전체적으로 전공의 적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0.3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네 학교 모두 전공에 대한 적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공의 미래 전망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질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요인에 대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입시 경쟁률의 상대적 중요도(0.39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Y 대학교(0.415)와 H 대학(0.389)의 경우, 학생부 성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C 대학교의 경우 수능 성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537)가 높게 나타났으며, B 대학의 경우 입시 경쟁률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0.461)가 높게 나타났다.

#### 4. 복합가중치에 의한 전체 평가요소의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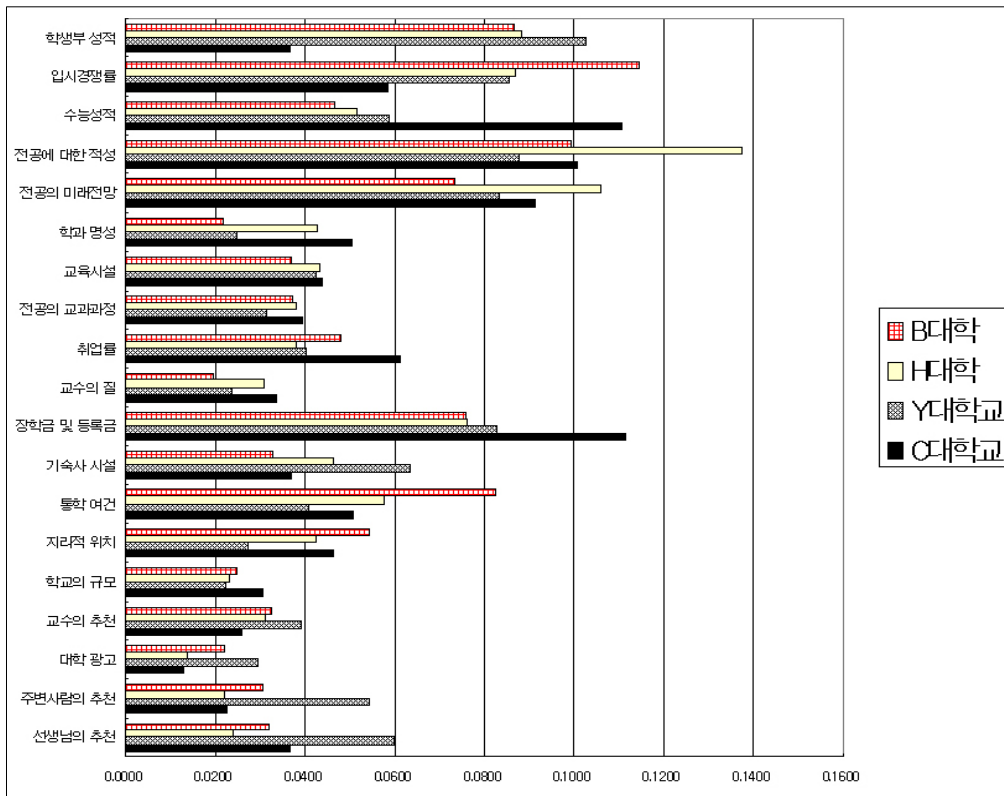
〈표 7〉과 〈그림 2〉는 조리 관련 학과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각각의 평가요소별로 전체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 대학의 경우, 전공에 대한 적성 요소가 복합가중치 0.1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시 경쟁률 요소(0.1044), 학생부 성적 요소(0.0963), 전공에 미래 전망 요소(0.0801)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 광고 요소(0.0189), 학교의 규모(0.0239), 교수의 질 요소(0.0253) 등의 복합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및 등록금 요소가 복합가중치 0.1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능성적 요소(0.1106), 전공에 대한 적성 요소(0.1006)의 복합가중치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표 7〉 대학별 전체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

평가영역	C 대학교		Y 대학교		H 대학		B 대학		전체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선생님의 추천	0.0367	13	0.0598	8	0.0240	16	0.0319	15	0.0339	13
주변 사람의 추천	0.0225	18	0.0544	9	0.0220	18	0.0305	16	0.0294	16
대학 광고	0.0129	19	0.0296	15	0.0137	19	0.0221	14	0.0189	19
교수의 추천	0.0259	17	0.0392	13	0.0312	14	0.0324	13	0.0328	14
학교의 규모	0.0306	16	0.0225	19	0.0231	17	0.0248	17	0.0239	18
지리적 위치	0.0464	9	0.0275	16	0.0423	11	0.0543	7	0.0422	9
통학 여건	0.0508	7	0.0408	11	0.0578	6	0.0826	4	0.0578	7
기숙사 시설	0.0370	12	0.0635	6	0.0468	8	0.0327	12	0.0410	10
장학금 및 등록금	<b>0.1115</b>	<b>1</b>	0.0827	5	0.0763	5	0.0759	5	0.0793	5
교수의 질	0.0337	15	0.0237	18	0.0310	15	0.0195	19	0.0253	17
취업률	0.0610	5	0.0404	12	0.0379	12	0.0480	8	0.0435	8
전공의 교과과정	0.0396	11	0.0314	14	0.0379	12	0.0373	10	0.0355	12
교육 시설	0.0438	10	0.0424	10	0.0432	9	0.0370	11	0.0401	11
학과 명성	0.0505	8	0.0247	17	0.0427	10	0.0218	18	0.0314	15
전공의 미래 전망	0.0914	4	0.0832	4	0.1059	2	0.0732	6	0.0801	4
전공에 대한 적성	0.1006	3	0.0878	2	<b>0.1373</b>	<b>1</b>	0.0995	2	<b>0.1221</b>	<b>1</b>
수능성적	0.1106	2	0.0588	7	0.0518	7	0.0466	9	0.0623	6
입시 경쟁률	0.0585	6	0.0855	3	0.0869	4	<b>0.1143</b>	<b>1</b>	0.1044	2
학생부 성적	0.0367	13	<b>0.1025</b>	<b>1</b>	0.0883	3	0.0868	3	0.0963	3



〈그림 2〉 대학별 전체 평가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대학 광고 요소의 복합가중치(0.0129), 주변 사람의 추천 요소(0.0225), 교수의 추천 요소(0.0259) 등의 복합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Y 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성적 요소가 복합적 가중치 0.10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적성 요소(0.0878), 입시 경쟁률 요소(0.0855)의 복합가중치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의 규모 요소(0.0255), 교수의 질 요소(0.0237), 학과 명성 요소(0.0247)의 복합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H 대학의 경우, 전공에 대한 적성 요소가 복합가중치 0.1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의 미래 전망 요소(0.1059), 학생부 성적 요소(0.0883), 입시 경쟁률 요소(0.0869)의 복합가중치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 광고 요소(0.0137), 주변 사람의 추천 요소(0.0220), 학교의 규모 요소(0.0231)의 복합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B 대학의 경우, 입시 경쟁률 요소가 복합가중치 0.11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한 적성 요소(0.0995), 학생부 성적 요소(0.0868), 통학 여건 요소(0.0826)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수의 질 요소(0.0195), 학과 명성 요소(0.0218), 학교의 규모 요소(0.0248)의 복합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 관련 학과 입학생들의 학과 선택 시 고려하였던 요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조리 관련 학과의 학생 유치 전략을 개발하려는 대학 경영자나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

도에 위치한 2곳의 4년제 대학과 2곳의 2년제 대학의 2008년 입학생에게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일관성 지수가 0.1 미만인 142부를 토대로 각 요인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기법인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사용하였다.

조리 전공자들의 대학 선택 영향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 순위를 측정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학 입학 시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영역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과 교육 환경 요인(0.378), 성적 요인(0.263), 대학 교육 환경 요인(0.244), 권유 요인(0.11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과 교육 환경 요인은 전공에 대한 적성(0.323), 전공에 대한 전망(0.212), 취업률(0.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요인은 입시 경쟁률(0.397)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의 교육 환경 요인은 장학금 및 등록금(0.325), 통학 여건(0.237), 기숙사 시설(0.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천 요인은 선생님의 추천(0.295)과 교수의 추천(0.2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가 요소의 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는 전공에 대한 적성(0.1221), 입시 경쟁률(0.1044), 학생부 성적(0.0963), 전공의 미래 전망(0.0801), 장학금 및 등록금(0.079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광고(0.0189), 학교의 규모(0.0239), 교수의 질(0.0253) 등은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 관련 학과 자체적인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비 학생들은 각 대학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 인터넷 및 구전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경쟁 대학에 비해 차별화된 교육 제반 시설 확충, 전문화된 교육 과정의 개발, 취업 활성화 및 학과 이미지 향상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등록금·장학금 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균일화된 등록금 책정 및 성적에 따른 장학금 수혜 방

법 등에서 벗어난 등록금 및 장학금 개발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능 및 학생부 성적, 입시 경쟁률에 대한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시 1학기 제도 폐지 및 입학 정원 자율화 정책 등에 의해 대학 간 입학생 유치가 치열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박종무·이희옥·김길현(2003)과 이영훈(2004)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주위의 권유’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대학이 살아 남기 위해서 교수들의 고등학교 방문 및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홍보 내지 유치 활동은 효과 면에서 보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차별적인 대학 홍보 전략보다는 고등학교 조리 관련 학과와의 연계 등을 통해 세분화된 목표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충청도에 위치한 특정한 4개 대학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과의 전체 신입생들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타 대학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보다 폭넓은 대학으로 확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학 선택 요인에 대한 만족도 및 입학생 유지(retention) 연구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신입생 모집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이탈을 최소화 하는 것이 대학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고경순 (1999) : 대학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통합적 접근 방법. *광고연구* 45:105-124.
2. 김기영 (2005) : 외식산업에서 조리학의 학문 분야간 문헌의 인용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1(3):1-17.

3. 김대관·박양우·이상민 (2007) : AHP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계획단계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1(4):5-18.
4. 김종원·김창현 (2008) : AHP 기법을 활용한 하천복원요소 간의 우선 순위 분석. *한국경제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19.
5. 박종무·이희욱·김길현 (2001) : 대학 선택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권 소재 2, 3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산경연구* 9: 209-237.
6. 박종무·전채남·권미옥 (2004) : 신입생의 대학 선택 요인과 대학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교육논총* 34:373-399.
7. 박한나·한경수 (2002) : 계층화 분석 과정 (AHP)를 활용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인력 관리. *외식경영연구* 5(3):43-64.
8. 손준중 (2002) : 지방사립대학 신입생의 대학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13(2):49-73.
9. 신도길 (2000) : 대학 이미지가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8(2): 313-332.
10. 신봉섭 (1997) : 대학 선택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충남*.
11. 신봉섭·이석열 (2003) : 대학간의 대학 선택 결정과 선택 확신도의 영향 요인 비교; 컴퓨터공학 관련 학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연구* 14(1):27-53.
12. 염진철·박한나 (2003) : AHP를 이용한 패밀리 레스토랑의 입지 선정. *외식경영연구* 6(3): 161-178.
13. 오윤석·정순여 (2004) : 외식산업의 성과측정항목의 가중치 개발: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7(2):125-145.
14. 이영훈 (2004) : 대학 선택 동기 요인과 가치 체계의 관계. *오산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 생활연구* 9:47-75.
15. 이정실 (2006) : AHP를 이용한 호텔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우선 순위 분석. *관광연구* 21(3): 81-95.
16. 이재진 (2006) : 베이커리 기업의 경쟁력 평가모델개발. *한국조리학회지* 12(1):203-215.
17. 임채관·이정실 (2007) : AHP를 이용한 CRM 성공요인의 우선 순위 분석: 부산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8(1):137-159.
18. 장명희 (2005) : 조리교육의 운영 실태와 체계적인 조리인력 양성 방안. *한국조리학회지* 11(2):1-19.
19. 정시용 (2001) : 대학 소비자의 대학 선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부산*.
20. 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3) :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 결정. *동원출판사, 서울*.
21. 최관용·전승훈·정현택 (2004) : 유도 선수들의 대학 선택 결정 요인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5(3):601-610.
22. 황매향 (2002) : 진로의사 결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 *서울대학교, 1, 서울*.
23. Chapman DW (1981) : A model of student college choi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409-505.
24. Hossler DJ ·Coopersmith G (1989) : Understanding student college choice. J. C. Smart ed. (1989),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5, New York; Agathon press, 231-288.
25. Saaty TL(1982)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25:64-69.

---

2008년 7월 28일 접수

2008년 8월 19일 1차 논문수정

2008년 8월 21일 게재확정